유현상재 YOUNHYUN

홈페이지

younhyun.com

spacebe.co.kr

인스타그램 @younhyun_official

@spacebe_gallery

YOUNHYUN TRADING 药 呟 商 材



총괄 기획 최주연 부사장 윤현상재 Space B-E ㈜윤현상재 부사장으로

Space B-E의 총괄 디렉팅을 맡고 있다. Space B-E의 B-E는 Becoming의 약자로 철학에서 사물이 어떤 상태로부터 변하여 다른 상태로 됨을 이르는 말을 뜻하는 단어다. 과정(Process)과 태도(Attitude)를 중시하며 사람, 사물 그리고 건축의 맥락적 관계에 집중하여 다양한 기획을 통해 온 오프라인의 플랫폼 확장해 나아가고 있다. 2019 인테리어디자인코리아, 제2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현장프로젝트, 2019 공예트렌드페어의 주제관 예술감독을 역임했다.



협업 디자이너 임태희 소장 Lim TaeHee Design Studio 임태희디자인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 실내 디자인, 전시 등 공간을 통해 제안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이어 오고 있다. 삶을 관찰하며 그것들을 통한 배움과 깨달음을 통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공간에 대해 추구한다. 2019 공예트렌드페어의 한지관, 2018 공예트렌드페어 쇼케이스, 2017 MCBW 한국관, 2015 KOREA NOW in Paris 패션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시를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색깔을 표현해내고 있다

유현상재는 '초목의 새싹이 돋아나는 소리'를 뜻하며 고객의 작은 소리까지 귀 기울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단단한 초석 위로 시간의 축적물이 쌓여가듯 윤현의 고유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기획들을 통해 영역을 확장하고자 하다.

Space B-E는 경계를 두지 않고 확장하는 윤현의 마인드를 대표하는 또 다른 페르소나로 건축, 공예, 순수 미술 등 경계를 한정 짓지 않고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모두에게 열린 놀이터 같은 시간과 공간을 함께 제안하고자 한다. YOUNHYUN as a name has the definition of 'Sounds of sprout of greens' and contains the meaning of listening to even the smallest voices of customers.

As the accumulation of time gaters on a solid foundation of stone, Younhyun intends to expand the domain through various projects based on Yunhyun's own uniqueness.

Space B-E is another persona representing Yunhyun's philosophy that expands without boundaries. It does not set boundaries in architecture, crafts, and fine art. Instead, it aims to propose a playground-like time and space that open to all who love culture and art.

Collaboration with 2021. 5. 26. Wed — 5. 30. Sun Coex Hall A Brand 일 상, 위 요 감

총괄 기획 윤현상재 스페이스비이 협업 디자이너 임태희 디자인 스튜디오 협업 브랜드 슬로우파마씨, 티더블유엘 작가 강석근, 김남희, 김규, 김민욱, 김준수, 남미혜, 류연희, 바다디자인아뜰리에, 배주현, 백경원, 빈콜렉션, 수오, 안나리사 알라스탈로, 안문수, 유남권, 유태근, 윤세호, 이윤정, 이정우, 이진주, 이찬우, 임서윤, 정현지, 최근식, 최희주, 파이브콤마, 허유정 협찬 지복득마루

Directed by YOUNHYUN Space B-E **Collaboration with**

LimTaeHee Design Studio

Brand SLOW PHARMACY, TWL

Creators Kang Sukkeun,

Kim Namhee, Kim Gyu, Kim Minwook,
Kim Junsu, Nam Mihye , Ryu Yeunhee,
BADA design/atelier, Bae Joohyun,
Baek Kyungwon, VIIN Collection, Suo,
Annaliisa Alastalo, An Moonsu,
Lyu Namgwon, Yoo Taekeun,
Yoon Seho, Lee Yoonjeong,
Lee Jeongwoo, Lee Jinjoo, Yichanu,
Lim Seoyoon, Jung Hyunjee,
Kunsik, Choi Heeju, FIVECOMMA,
Huh Yujung

Supported by JIBOKDEUK MARU

일상의 위요감

코로나로 이어지는 팬데믹의 상황은 우리의 일상을 바꿔 놓았다. 컨택트, 언컨텍트를 논하는 시대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때론 사물과 어떻게(distance, density) 관계를 맺어야 할지 깊은 사색에 잠기게 된다.

'나를 에워싸는 일상에 대해서…' 일상(日常), 특별함이 없는 매일의 루틴이 반복된다.

우리는 수많은 사건을 마주하는 하루 속에 아주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찾으며 살아간다. 차를 내리고 책을 읽으며 아침을 준비하는 마음, 커피 한 잔과 나윤선의 재즈를 들으며 마시는 한 잔의 와인으로 삶의 여백을 만들어간다. 위요감(圍繞感), 건축에서 위요감은 무엇에 둘러싸여 느낄 수 있는 감도에 대한 이야기이다. 적당한 유대감이 필요한

무엇에 둘러싸여 느낄 수 있는 감도에 대한 이야기이다. 적당한 유대감이 필요한 이 시대에... 이번 전시는 공간적 언어인 위요감을 사람과 사물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야기로 풀어보고자 시작되었다. 거리와 밀도를 통해 사람과 사물에 적당한 위요감을 제공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디자이너에게 큰 의미가 있는 제안이지 싶다. 느슨해져야 하는 공간의 밀도와 친밀해져야 하는 사물과의 관계를 Art Archive를 통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Enclosure by YOUNHYUN

The pandemic associated with COVID-19 has changed our daily lives. In an age where aspects regarding contact and non-contact



are being discussed, we deeply contemplate on how we build relationship with other people and at times, with objects or properties. 'Regarding the daily life that encircles me...'

'Daily life, an ordinary daily routine that is not special repeats. We live in-between numerous events encompassed in our day, but we do find happiness in something very small that has occurred in our daily life. We create margin in our lives from preparing our morning by making tea and reading books, a cup of coffee, and listening to Na Yoon-Sun's jazz whilst having a sip of wine.

'Enclosure', in architecture, enclosure refers to the sensitivity deriving from feeling surrounded by certain objects or materials. In an age where 'appropriate' bonds are necessary...

This exhibition has been initiated in order to deconstruct 'enclosure', which is a particular spatial language by providing a narrative on the privacy of individuals and objects.

It would be a significant suggestion for contemporary designers if appropriate 'enclosure' on people and objects through distance and density can be provided. Through Art Archive, we are willing to provide a narrative on the density of space, which could be loose, and the relationship with objects that needs to be intimate.